



조선대병원 ‘스마트 의료지도’ 장관상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지난 13일 서울 레스케이프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추진단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1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은 현장 119구급대원과 의사가 스마트폰 화상 통화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 이송 도중 응급실 수준의 응급 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병원은 2015년부터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의료지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단계부터 적극적인 응급처리를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류창연 교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성실히 환자의 생명 소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했다.

노병하 기자



(주)리뷰티, 사회복지시설에 복부패치 기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화장품 업체 (주)리뷰티(대표 박은비)가 광주시 복지관, 가족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 14곳에 복부패치 100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주)리뷰티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아동가정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부터 초록우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인 ‘핑크박스’ 캠페인에 후원금과 위생용품 지원을 시작으로 가정위탁부모를 위한 마스크팩 기부, 양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간식을 지원했다.

박은비 대표는 “취약계층 아동가정들이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수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나눔사업팀장은 “취약계층 아동에 후원물품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고양이 ‘아구’ 광주 착한팻 8호 가입

광주 8호 ‘착한팻’으로 고양이 ‘아구’가 이름을 올렸다. (사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박철홍)은 광주 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송선경 양의 반려묘인 아구의 착한팻 8호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양은 고양이 이름인 ‘아구, 나구, 구구’를 따서 만든 ‘아나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다.

송양은 “첫 수익금인 만큼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며 착한팻이라는 기부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랑의 열매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하는 프로그램 ‘착한팻’을 정식 론칭했다. 착한팻 가입자는 반려동물 명의로 ‘착한팻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성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과 치료비 및 취업 등에 사용된다.

문의는 광주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나 사무국(062-222-3562).

강주비 기자



광주시교육청 ‘제37회 광주교육상 시상식’

광주시교육청이 19일 ‘제37회 광주교육상 시상식’을 갖고 3명에 상패 및 부상을 수여했다. (사진)

광주교육상은 지난 1987년부터 시작된 올해로 37회째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매해 광주교육 가족 중 사명감이 투철하며 현장 교육 개선에 헌신·봉사하거나 청렴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수상자는 △전 염주초등학교 문재욱 교장 △전 장덕고등학교 최운길 교장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최경숙 행정지원국장이다.

문 전 교장은 교원들의 수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상담·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최 전 교장은 학교경영과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로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최 전 국장은 최초 여성 국장으로 교육복지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노조·지자체 등과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38년 동안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김혜인 기자



광주북부경찰, 어린이 등굣길 안전 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북구 용봉동 용주초등학교 정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홍보 활동에는 북구청, 동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용봉마을공동체, 용봉행정복지센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교사·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이용 법규 꼭 지켜주세요!’가 적힌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관련 홍보물품을 등굣길 어린이에게 나눠줬다.

출근길 운전자에는 보이스피싱 홍보 전단을 건네며 피해 예방 홍보활동도 펼쳤다.

정성현 기자



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청렴 서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청렴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공동체 상생을 위해 ‘법무보호위원·직원 청렴 서약식’을 JS웨딩홀에서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 등 법무보호위원과 광주전남지부 직원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을 선서했으며 자원봉사자와 직원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 준수 실천을 다짐했다. (사진)

최정학 협의회장은 “법무보호위원으로서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며 밝혔다.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반부패·청렴 활동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뉴진스, 버니즈와 두번째 겨울… 첫 리믹스 앨범 발매

인기 걸그룹 ‘뉴진스(NewJeans·사진)’가 첫 리믹스 앨범으로 팬덤 버니즈(Bunnies)와 두 번째 겨울을 맞는다고 밝혔다.

19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오후 6시 음원 플랫폼에 첫 리믹스 앨범 ‘뉴진스(NJWMX)’(NewJeans Winter Mix)를 공개한다.

이날은 뉴진스의 겨울 대표곡 ‘디토(Ditto)’가 공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로, ‘NJWMX’엔 올 겨울도 버니즈가 뉴진스의 노래로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라는 멤버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어도어는 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통해 “작년과 올해 큰 사랑을 받은 곡들의 리믹스 버전을 들으며 저희와 함께 했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바랐다.

‘NJWMX’엔 뉴진스의 첫 싱글 ‘OMG’에 수록된 2곡(‘디토’·‘OMG’)의 리믹스와 데뷔 앨범 ‘뉴진스(New Jeans)’에 실린 4곡(‘어텐션’·

‘하이프 보이’·‘쿠키’·‘허트’)의 리믹스, 6곡의 연주곡(Instrumental) 등 총 12곡이 담겼다.

‘디토’ 리믹스는 마치 겨울밤 캠프파이어를 함께 즐기는 듯한 정겨운 어쿠스틱 사운드로 재탄생했으며 슬레이벨 사운드와 아프로 힙합(Afro hiphop) 리듬을 활용한 ‘OMG’ 리믹스에서는 특별하고 따뜻한 ‘뉴진스표 겨울’을 느낄 수 있다.

‘어텐션’ 리믹스는 원곡의 청량함에 퍼커시브(Percussive) 요소가 더해져 더욱 톡톡 튀는 매력으로 편곡됐고, ‘하이프 보이’ 리믹스는 1990년대 R&B 스타일로 분위기가 있게 변신한 곡이다. ‘쿠키’ 리믹스는 잔잔한 로파이(Lo-Fi) 사운드로, ‘허트’ 리믹스는 블루그래스(Bluegrass)풍으로 겨울에 걸맞은 감성을 끌어올렸다.

뉴진스는 내놓는 곡마다 국내외 차트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겨울 상징곡으로 통하는 ‘디토’와 ‘OMG’는 연말을 맞아 주요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 중이다.

이주영 기자

허성태가 ‘미스트롯3’ 무대에? …파격 퍼포먼스 예고

배우 허성태(사진)가 댄스 크루 프라임킹즈와 함께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3’ 포문을 연다.

19일 TV조선 측은 ‘미스트롯3’ 오프닝 무대에 허성태와 프라임킹즈가 선다고 밝혔다.

허성태는 앞서 ‘SNL 코리아’에서 치명적인 웨이브의 ‘코카인 댄스’를 선보이고 큰 화제가 됐다. 이후 가수 사이의 콘서트 ‘흠뻑쇼’ 오프닝에서 코카인 댄스를 추기도 했다. 그 열기가 ‘미스트롯3’까지 이어져 프라임킹즈와 컬래버레이션 무대까지 성사됐다.

허성태와 프라임킹즈는 역동적이고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참가자 72인의 마음을 완벽히 녹이는 압도적인 퍼



포먼스로 박수세례를 받았다.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박진감 넘치는 구성으로 ‘미스트롯3’의 시작을 이끌 예정이다.

허성태도 오디션 경험자라 의미가 있다. ‘기적의 오디션’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다. “저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어서 그런지 제가 참가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이 긴장했다”며 “오디션 당시의 마음가짐과 초심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신선한 무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평소대로 준비한 대로 즐기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꼭 응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옥문아’ 폐지… ‘홍김동전’ 종방 반대 청원도

‘홍김동전’에 이어 ‘옥탑방의 문제들’(사진)도 막을 내린다.

19일 KBS에 따르면,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다음 달 1월 중순 종방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첫 선을 보인 후 5년 여 만이다. 코미디언 송은이와 김숙, 정형돈, 가수 김종국, 이찬원이 진행한 토크쇼다. 시청률 2~4%대(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KBS 2TV 홍김동전도 비슷한 시기 종방할 계획이다. 전날 이 소식이 알려지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홍김동전 폐지를 반대하는 글이 쏟아졌다. 시청률 1%대로 고전했으나, 화제성은 높았다. 시청자들은 “트렌드를 모



르냐” “평일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팬층이 탄탄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느냐” “요즘 누가 본방을 보느냐. 웨이브에선 1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